

아오시마 신사: 식생

아오시마섬의 대부분은 아열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로야자(*Livistona chinensis*)는 아오시마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야자는 수 세기에 걸쳐 아오시마섬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약 5,000 그루가 자생하는 비로야자 중에는 수령이 최대 350 년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로야자는 최대 15m 까지 자라며 봄이 되면 흰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무르익은 파란 열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부채꼴 모양의 잎사귀는 헤이안 시대(794 - 1185)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오시마섬의 비로야자 잎사귀는 교토의 궁중에 헌납되었으며 우차(牛車)에 탄 귀족이나 고관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했습니다. 아오시마섬에서 볼 수 있는 비로야자를 미야자키현 본토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나 줄기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남쪽에서 섬으로 흘러들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로 비로야자는 아오시마섬의 토착종으로 지금보다 훨씬 온난한 기후였던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남은 것이 현재에 이른다는 설입니다.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기타 225 종의 식물 중 독특한 종으로는 독을 품은 알로카시아(*Alocasia odora*), 여름에 꽃을 피우는 하얀 석산의 일종인 문주란(*Crinum asiaticum*), 다정큼나무(*Rhaphiolepis umbellata*) 등이 있습니다. 작은 관목인 다정큼나무는 예로부터 끓여서 염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오동(*Clerodendrum japonicum*), 후추등(*Piper kadsura*), 그리고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오동은 통상 약 2m 높이까지 자라는 관목으로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진한 빨간색의 꽃을 피웁니다. 후추등은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후추과 식물로 늦여름이 되면 주황색 열매를 맺습니다. 후박나무는 월계수의 일종인 상록활엽수로 30m 까지 자라기도 하며 후박나무보다 수령이 낮은 비로야자 숲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정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